

보성군, '돌다리 행정점검단' 본격 시동

보성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영 논의

칸막이 넘어 폭넓게 사업 타당성 검토

보성군은 지난 18일 부군수실에서 최병만 부군수 주재로 '돌다리 행정점검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성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보성군 돌다리 행정점검단은 2018년 발족했다. 현재 최병만 부군수가 단장을 맡고 있으며, 실무 단장 계장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보성군에서 추진되는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연계하여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연계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 간 유기적 관리를 통해 추진절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는 키잡이 역할을 수행한다.

최병만 부군수는 "돌다리 행정점검단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재시공 등 재정 낭비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예산 절감과 더불어 효과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돌다리 행정점검단은 군 직영 관리

시설물의 효율 극대화, 5대 통합축제 성공개최 등의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몸·마음 건강 만들기 with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프로그램은 지난 12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0년에는 ▲신체활동 분야 ▲임산부·어린이·청소년 특화 분야 ▲취미·문화·정서 분야 등 3개 분야로 마련했다.

'신체활동 분야'는 시니어 건강 댄스, 파워 점핑 등 총 13개 프로그램, '임산부·어린이·청소년 특화 분야'는 산전·산후 요ガ를 포함하여 5개 프로그램, '취미·문화·정서 분야'는 오카리나, 우쿨렐레를 포함하여 9개 강의까지 총 27개의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화로만 접수받으며, 전화 접수자는 추후 센터에 방문해

개인정보 동의서 등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루어지는 만큼 본인만 접수가 가능하며 프로그램마다 준비물이나 재료비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강의 내용과 재료비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영고 순천시보건소장은 "신대 건강증진센터의 프로그램은 지난해 신체활동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수준 있는 프로그램이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겁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061-749-3640, 3581-3)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문화센터 수영장,

28일까지 휴장 연장

화순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을 오는 28일까지 휴장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해 군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지역 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영장의 휴장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발굴에 박차



영광군은 지난 18일 지역특화작목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내 다수의 농업인이 재배하는 작목, 생산규모

가 큰 작목, 성장 가능성성이 높은 작목을 지역대표작목으로 선정·육성하여 지역농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표 작목으로는 △재배 농가 수가 많은 고추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땅딸기, 망고, 블루베리, 샤인머스켓 △보리산업특구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맥류 △영광군의 주 관광 자원인 상사화 △영광군 특산품인 모싯잎 송편의 주재료인 모시가 거론됐으며 향후 협의회를 몇 차례 더 개최하여 영광군 지역 특화작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지역 특화작목이 선정되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술·정보를 지원한다. 영광=서희권 기자

구례군, 지방세 징수율 우수 평가

구례군이 지난 19일 전라남도 주관 '2019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의 지방 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율, 징수규모, 이월 체납액 최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지자체에 상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다.

구례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군·읍면 공동 징수

반을 편성하여 지방세 체납액 상담,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하여 지진납부를 유도하였고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예금압류, 체납자량 번호판 영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군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의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하여 납세편의와 친절한 세무행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여수시 화정면 "이제 배 말고 버스 타요"

교통난 해소 기대 증가

여수시는 올해 도입될 화정면 마을버스 노선을 1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노선은 고흥군 우두에서 출발하여 적금마을, 예산마을, 규포마을, 둔병마을, 조발마을, 장등마을, 세포를 경유하여 나진이 종점이다.

마을버스는 총 2대로 하루 왕복 5.5회 운행하며 1회 왕복 운행 시 170분이 걸린다.

화양~적금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는 마을버스가 도입되면 그 동안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던 화정면 섬 주민들은 반기는 입장이다.

시는 시내버스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와 도서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 6억 원을 확보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